

공동체 소식



연중 제16주일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의 성인

- 7/25(수) : 성 야고보 사도 축일
- 7/26(목)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본당 4구역 구역모임은 하절기 동안 쉽니다.

오마하 ME주말 교육 안내

- 일시: 9월 15-16일, 1박2일(토,일)
- 장소: 오마하 성당, 참가신청은 별도의 문의바랍니다.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Table with 5 columns: Day, Start, Example, Church, and Psalm.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Day, Homilist, and Reader.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Day, Reader, and Lectionary.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Day, Name, and Role.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Day, Name, and Role.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미사시간

주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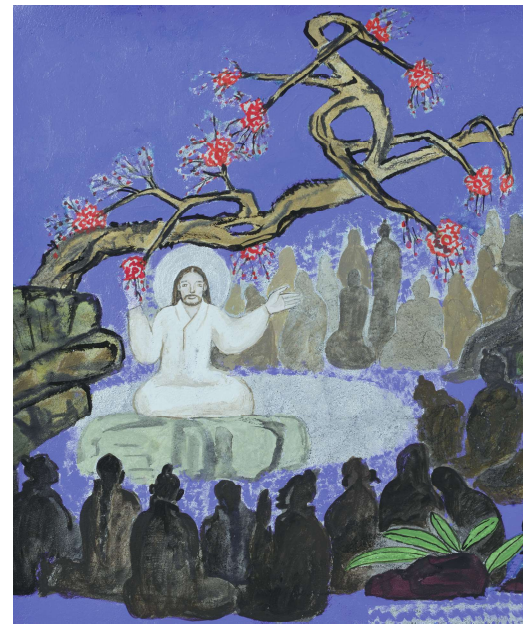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경축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 뵈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림 묵상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로 바쁜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을 읽으십니다. 또한 많은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아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은 가엾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던져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3,1-6

<나는 살아남은 양들이 다시 모아들여 그들은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화답송 :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2,13-18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0-34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생명의 말씀 **기도는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가는 방법**



오래전 기도를 주제로 한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꼬마가 피곤한 얼굴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앉아서 기도하기가 힘들어 누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 곁에 누우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어린이의 그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작년 TV의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과거 성인들도 기도 중 잠을 잤다”고 하시며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도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교황님 자신도 기도 중에 깜박 졸음에 빠질 때가 있다 하시면서 가톨릭 신자라면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을 청하게 되는, 아버지의 팔에 누운 어린이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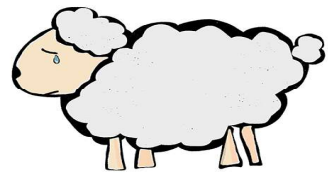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피곤함에 지친 제자들에게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안식일 법이 아주 중요하게 지켜졌는데, 인간 생활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본적인 생활이 원칙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신성한 일이지만, 하느님과 만나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 보고 삶의 의미를 헤아려보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밀려드는 군중 때문에 매일 바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한밤중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활동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는 성전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집에서도 모여 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인간적

인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모임 성격을 띠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면 아무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열심히 교육을 받아도 참다운 공동체로서 모습을 지니기 힘듭니다. 일치와 친교,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도 기도 안에서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신앙교육이 됩니다. 한 가족이 모여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나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늘 안쓰럽습니다.
다 가진듯해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찾았는지 부족한 점을 찾아낸답니다.
게다가 찾아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마르 6,3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저는 결혼 적령기가 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경구를 떠올리며 확실한 결혼관을 확립하고자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많은 글을 섭렵했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결혼은 차원이 다르다'였으며,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신붓감의 기본 조건들을 헤아리신 뒤, 선보러 오라고 하시면, 틈나는 주말마다 내려가 선을 보았는데, 열 한 번째 선을 본 아가씨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흔히 말하는 '필'이 꽃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장소를 상의하는 중, 그녀의 가족 중 그녀만 가톨릭 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쉬는 교우'였지요. 저는 비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성사'를 고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가 신자였으므로 아무도 제 주장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올리고, 아들과 딸도 유아세례를 받게 하였지만, 그때까지도 세례를 미루면서 저는 아내를 따라 주일 미사에 가끔 가곤 하였으니, 그야말로 '사이비 비신자'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아내를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에도 저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3이던 딸의 사춘기에 대한 저의 불안감으로 저는 딸에게 '함께 교리 받고, 세례 받자'라고 제안하게 되었고, 딸도 흔쾌히 받아들여 결국 하느

님의 부르심에 세례를 받고, '예, 저는 믿습니다'라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중책을 맡게 되자, 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갑상선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이고 예후가 좋은 증상이었지만, 아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피정과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저는 이때 또다시 하느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중책도 내려놓게 되자, 저에게는 '한국 순교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겼고, 틈틈이 관련 서적과 강의 등을 섭렵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불사한 선조들의 신앙심'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넘치는 사춘기 때 겪은 친구의 죽음이 엄청난 '절망과 허무'를 제게 안겨주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 선열'의 삶은 바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전형'이며, '그리스도의 영성'을 사모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총임을 믿기에 앞으로의 제 삶은 감사와 찬미를 더 많이 드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민 세례자 요한 | 가톨릭상담심리사

교리상식

성무일도가 뭐죠?

성무일도(聖務日禱)는 거룩한 직무로서 일상에서 바치는 기도이며, '시간경'이라고도 합니다. 성무일도의 기원은 하루에 여러 번 하느님께 찬양을 올렸던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들도 이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동트는 시간을 아침 여섯 시로 하고, 이때부터 세 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아침기도와 서녁기도, 새벽기도 등이 들어갑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간략하게 되어 아침, 점심, 저녁, 밤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